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처럼 진실과 거짓이 심하게 뒤범벅된 세상을 '탈진실'의 시대라고 말한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서 부터 왜곡과 위장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탈진실의 문제는 특히 가짜 정보의 확산 현상에서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일과 관계에서까지 탈진실의 현상이 당당히 하 나의 양식으로 등장하는 시대다. 어떻게 이 지경인가 싶 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맹목적이 고 주관적인 신념과 이로 인한 감정들을 토대로 화려한 가면놀이와 공허한 언행의 성찬에 익숙해진 결과다. 왜 우리는 사실과 진실, 기만과 호기를 혼동하는가.

우선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먼저 사실이 란 단순히 눈앞에 드러난 모습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거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 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이다. 그리고 항상 분절된 모 습들로 떠돌아다니는 특성이 있는 사실들은 항상 일정 한 감정을 자극한다. 이미 선입견을 통해서 자리 잡은 호감과 거부감, 불신이나 확신 등이 사실에 내포된 진실 의 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실의 덫과 우물 속 진실에 대한 용기

불쾌한 대상에 관련된 일은 언제 어떤 모습을 하든, 맥락을 살피기 전에 이미 '진실'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바로 확증편향이다. 이런 견고한 선판단의 틀에 집어 넣고 정해진 결론을 내리는 탓에 맥락을 통한 실체적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개인적이고 맹목 적인 특정한 감정에 의한 판단은 굴절된 사실들을 진실 의 이름으로 행세하게 한다.

사실들은 조건에 따라서 파편화되어서 여러 형태로 보인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진실은 왜 곡되거나 모방될 수 없지만, 실체를 쉽게 드러내지도 않는다. 진실은 사실과 달리 성찰하는 과정을 필연적 으로 요구하며, 사실들의 한계 너머 깊숙한 곳에 자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 자 데모크리투스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우물 속에 숨어 있다'고.

이런 진실이 사실과 비슷하게 보여서 혼동하기 쉬운 이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자못 흥미롭다. 어느 화창 한 날 진실과 거짓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거짓의 제안 으로 우물에서 목욕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도중에 거 짓이 우물 밖으로 뛰어나가 진실의 옷을 입고 달아나 버린다. 옷을 빼앗긴 진실은 우물 속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고,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고 세상을 활개치게 되

이 일화의 사실 여부를 캐묻는 것은 맥락을 외면하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객관적 사실 여부만을 판단의 기 준으로 삼을 때 진실은 더 깊숙한 심연에 남겨지게 될

고흐의 '한 켤레의 구두' (1886)에 관해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이야기에서도 '사실' 그 너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이 유명한 고흐의 낡고 닳 은 구두 그림을 1930년 암스테르담의 전시에서 보았 다. 그리고 '궂은 날도 가리지 않고 한없이 밭고랑을 수 도 없이 밟고 지나갔을 그녀의 강인한 발걸음이 응축되 어 있는 낡아 빠진 구두'라고 썼다. 한 여성 농부가 신 었던 구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한 미술학자가 구두는 여성 농부의 것이 아니 고 당시 파리의 거리를 걸었던 고흐 자신의 구두일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하이데거가 그림 너머에서 본 것은 고단한 한 여 성의 삶과 그럼에도 잃지 않은 강인한 생명력이다. 구 두 주인이 누구냐는 것과, 거친 땅 대신 파리의 거리를 걸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과연 그림에 담긴 예술적 진실에 더 다가서는 방법일까.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그래서 사실은 진실로 가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진실 이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은 맹목적인 확증이나 사실들 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면 즉 우물 속의 진실이 말하 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소크라테스의 오래된 한 마디를 새롭게 새긴다. 세 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자 덕목인 '너 자신을 알 라.' 이 말은 곧 '너 자신의 다이몬을 알라'는 의미다. 다이몬은 내면의 소리, 심연에 갇혀 있는 진실의 소리 를 말한다. 이 우물 속 진실로 가는 길은 의지와 용기뿐 이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일한 길이다.

社說

'언론중재법' 빈대 잡으려다 집까지 태울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 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힘 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데 이러한 민주당의 언론 개혁안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물론 정의당과 진보 언론마저 강하게 반 대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도 공동성명을 통 해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했다.

가짜 뉴스를 척결하고 언론을 개혁하겠 다는데 이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 허위 ·조작 보도는 물론 고의·중과실이라는 판 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 계가 지적한 부작용이나 독소조항을 일부 잘라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훼손·위축·침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자유언 론 투쟁에 나섰던 원로 언론인들마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자유언론실천재단 은 "언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기나긴 군부독 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 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갖는다는 점 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 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없앤다며 언론중 재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 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 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원로들을 비롯한 언 론 유관단체들과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언론의 권력 감 시 기능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조항들 을 바로잡고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시민 들의 피해 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리 인상 직격탄 소상공인은 어떡하라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 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 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 리 두기 강화로 매출은 줄고 빚만 늘어나 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엊그제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 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 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 린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 난 6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조 1647억 원(6.0%) 증가한 55조 6491억 원을 기 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건 비와 재료비 등 운영자금 명목이었다. 경

영 위기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 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1년 반 넘 게 장기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책자금 외에도 개인 대출까지 끌어다 쓰며 버텨 온 탓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 출 회복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 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쓰 러질 수밖에 없고, 은행 또한 동반 부실화 되는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금융계는 대출 금 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금 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과감한 지원 대 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 대응 정 책자금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 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될 예정 이지만, 다시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기 卫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문미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전시연출부장

정원은 본래 특정 건물에 부속되거나 자연 지형, 문 화적 특성, 시대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역사적 인 유적지와 도시 및 마을의 자연 풍경, 그 가운데 전통 과 현대를 절묘하게 융합한 정원이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원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했던 시절 '2013 순천 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원예생산 자협회(AIPH) 인증을 받아 2013년 4월 20일부터 6 개월간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23개의 참가 국가, 440 만 명의 관람객,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낸 누 구도 예견하지 못한 그야말로 성공 박람회로 정원에 대 한 인식을 새롭게 열어준 기회였다. 2013년 박람회 이 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남 3대 별서정원 인 담양 소쇄원, 완도 부용동정원, 강진 백운동정원이 새삼 주목받았다. 또 전남도가 2017년부터 추진한 전 남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제1호 고흥 쑥섬과 최근 TV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제4호 구례 쌍산재 등 은 SNS 핫 플레이스가 됐다.

2013년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이라는 단어의 법률적 명확한 규정과 정원 관광·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수 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제정되어 정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큰 성과다. 이 법에 근거해 순천만정원은 2015년 7월 전남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됐으며, 같은 해 9월 '대 한민국 국가 정원 1호 순천만정원'이 탄생하면서 세계 가 주목하는 정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그린 뉴딜'이 포함됐다.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숲 정원, 마 을 정원, 해안 정원 등 그린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SOC)을 연계시켜 새로운 생태 공간을 확충하고 정원 을 통한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 는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그 선 도 사업으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전남이 유치해 앞장설 수 있게 됐다. 2023년 4월 22일부터 6 개월간 순천시 동천 일원과 국가 정원 등에서 개최되 며, 예상 관람객은 80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3년 박람회장은 동천 일원과 국가 정원, 문학관 정원을 연계하여 네 개의 행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다. 먼저 '역사문화 정원'은 순천의 역사와 현재 도시의 장소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곳으로 죽도봉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동천 정원길'은 박람회의 메인 공간으로 주 요 공간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 게 되며, '국가 정원'은 식물원(온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정원을 리뉴얼할 예정이다. '문학관 정원'은 갈대 정원을 보완하고, 스토리 정원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 를 통해 생태·환경·경관 등을 융복합적으로 담아내고, 순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정원화해 '정원 도시'로 발돋 움하게 할 작정이다.

이제 정원은 미래 도시의 이상형이며 복지의 상징이 다. 영국 런던은 매년 5월 가든 디자인 올림픽으로 불리 우는 '첼시 플라워쇼'가 영국 왕립원예협회 주관으로 개 최해 세계의 정원 문화를 이끌어 간다. 지역 주민들도 상 가 주변 꽃 장식, 미니정원을 선보이며 정원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정원이 우 리 생활 속에 함께 해 50년, 100년이 지나도 정원을 사랑 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꽃 피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슬로건 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꽃과 나 무를 아파트 베란다, 텃밭, 빈 땅, 담장에 식재하고 가 꾸는 일이다. 정원은 전문가가 설계하고 특정인의 전 유물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 가능 하며 생활 주변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 한 그루를 식재 하는 것이다. 누구나 직장 가정 등 생활 속에서 화분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 보길 바라며, 2023년 순천만 국 제정원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메타버스 시대의 농업



고

기

김성안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여러분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고 즐거우 면 어떻게 사나?"라고 웃으며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삶은 기분 좋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 다면 "이미 나의 삶에 메타버스(Metaverse)가 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메타버스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결합을 의미한 다. 가상·추상·초월·가공을 의미하는 '메타' (Meta)와 우주·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Universe)가 합성된 말이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가상 물리시스템(CPS)에 기반하고 있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및 확장현실(XR) 등 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 이버 제페토에 트와이스가 밝고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 의 아바타로 구현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보면 메타버 스 기술이라서 특별하고 트와이스라서 더 특별하게 느

이런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19년 464억 달러 정도였는데, 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2030년 메타버스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가 1조 542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 였다.

그렇기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금융,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중공업 분야의 산업 체까지도 관심을 보이며 기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크고 미래 먹거리로서 매력 적이며 앞으로 우리 삶의 큰 부분이 될 메타버스에 대 해 농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 분야 메타버스 컨텐츠의 발굴 및 확장이 다. 농업 분야 자료의 단순한 제공보다는 사용자 관심 을 유도하고 예비 농업인들에게 농업의 매력을 보여주 며 소비자에게 농산물과 농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농업 관련 기관 등이 서로 협업하는 것도 하나 의 전략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예쁘고 애교 많은 걸그 룹 멤버를 여성 청년 창업농 아바타 모델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오늘 새참은 뭐예요?"라 고 질문하면 아바타가 "오늘 새참은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치즈 김밥"이라고 하면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컨텐 츠로 MZ세대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거나 여

성 농업인·청년 창업농을 위한 교육, 후계 영농인 육 성, 농산물 판매 및 유통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메타버스의 원활한 구현을 위해 농촌 지역 5G 구축, 농업 맞춤형 VR·AR·MR 기기 개발, 공간 컴퓨 팅(Spatial Computing) 기술 향상 및 농기계와 메타 버스의 연동 등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버스 혜택을 농 촌이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농업 진흥 기관들도 역량 을 키워야 할 것이다.

셋째,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와 연계이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농업 관련 사업 모델을 키워야 한다. 농촌, 농작업, 농업 금융, 치유 농업 및 농기계뿐 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메타버 스 기술과 함께하며 성장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시장 선 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 분야 메타버스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다. 메타버스 기술에 의한 혜택을 농민, 농촌 및 농업이 적 시에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정책과 제도가 함께 해야 한 다. 이에 대한민국 농업 1등 전라남도에서 가장 빠르게 '메타버스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을 진흥하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여 현실 의 농촌과 가상 세계의 농촌이 서로 공존하며 새로운 농촌을 이루고 농업 역시 더 특별한 농업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커피 한 잔

커피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다. '커피 수혈' '커 피 브레이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직장인 이나 학생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 를 갖는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 (Montesquieu)는 '커피는 현명한 행동 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커피의 효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커피 기원설 가운데는 에티오피아의 염소 치는 목동 이야기가 있다. 칼디라는 목동은 어느 날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은 뒤 오랫 동안 흥분해 있는 것을 보

고이상하게 생각한다. 집 에 돌아온 그는 염소들이 먹었던 붉은 열매를 끓여

마셨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한테 그게 바로 커피 열매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동이야기는 이후 여러 지역에 전 해지면서 수많은 서사로 변주된다.

우리나라에 처음 커피를 들여온 이는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이다. 조선에서 최 초로 커피를 마신 인물은 고종이라고 전 해지지만, 사실은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 김대건 신부였다는 설도 있다. 한국학중 앙연구원 교수를 지낸 이길상 박사는 저 서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에서 흥미 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에 처음 커피를 배달시킨 이는 1861년 4월 7일 남 대문 인근에 거주하던 베르뇌 주교였다는 것이다. 주교가 홍콩 주재 파리외방전교 회 극동대표부의 리비아 신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커피를 요청했고 13개월 만 에 전달받았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 간 353잔(2018년 기준)이란 통계가 있 다. 세계 평균 132잔의 약 세 배에 달한 다. 2015~2018년 세계 소비량은 130잔

> 에서 132잔으로 거의 변 화가 없었지만, 한국은 291잔에서 353잔으로 늘었다. 커피 전문점과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바리스타 열풍도 불 었다. 커피가 생계와 문화에 밀접하게 연 계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다. 이길상 박사 는 "팬데믹 기간 커피 수입과 소비가 증가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한 다. 그만큼 고통과 우울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방증일 게다. 그래도 가끔 은 커피 한 잔에서 위로와 여유를 찾았으 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则日報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The Kwangju Ilbo

⟨FA X 222-0195⟩

⟨FAX 222-0195⟩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3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4 (FAX 222-0195)

부 220-0621

체 육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